

<흥남 철수 작전>

대한민국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선을 넘기 시작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리 평양에서 철수하고 일부가 중공군 도움을 요청하였다. 중공군이 드디어 11월 27일 제2차 청천강 전투와 장진호 전투를 일으켜 전세가 불리해지자, 국제 연합 사령부는 1950년 12월 8일 흥남 철수 지시를 내렸다.

이어 12월 15일 미국 1 해병사단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철수가 이뤄졌다. 장진에 머물렀던 미국 1 해병사단도 12월 24일에 마지막으로 흥남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평양은 이미 12월 4일에 대한민국 국군이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12월 6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양을 수복하였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선장 레너드 P. 라루 선장>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950년 12월 부산에 물자를 내려놓은 뒤 12월22일 흥남부두(흥남 항)로 갔다. 당시 흥남부두는 미군과 한국군 10만5천명과 피난민 9만명으로 혼잡한 상태였다. 미국 군함과 비행기가 중공군에 폭격을 하는 동안 군함과 상선 약 200척이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됐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정원은 60명이었고,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3명만 더 태울 수 있었다. 당시 미 육군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의 민사고문으로 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씨가 피난민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고, 레너드 P.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 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한 태우라고 명령했다. 피난민들도 자신의 짐을 버리고 승선해 모두 1만4천명이 탈 수 있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28시간 동안 항해해서 부산항으로 이동했다. 음식과 물, 이불, 의약품이 모두 부족했고, 적이 공격하는 와중이었지만 희생자는 한명도 없었다. 선원들은 옷을 벗어 여성과 아이들에게 줬지만 상태는 심각했다.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이 거절됐다. 라루 선장은 할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다. 항해 도중 아기 5명이 태어났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흥남 철수 작전이 끝난 뒤 시애틀로 갔다가 베트남전에 투입

되기 전까지 수년간 워싱턴 주 브레머턴(Bremerton, WA)에 정박해있었다. 1971년 퇴역했고, 1993년 중국에 팔려 고철로 분해됐다. 이 배는 미국 의회에서 갤런트 상(Gallant Award)을 받은 몇 안 되는 배중의 하나이다. 미국 교통부(DOT)는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라고 선포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메러디스 빅토리호 모형이 만들어졌다.

마리너스 수사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라루 선장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22년을 보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서양에서 상선을 타고 작전에 참가했다.

1952년 작전 참가 업무가 끝나고, 1954년 일본에서 신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병원에 있으면서 1950년 크리스마스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을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1954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절에 뉴저지 주 뉴튼시에 있는 베네딕토회의 성 바오로 수도원(St. Paul's Abbey in Newton, NJ)에 들어가 '마리너스'(Marinus)라는 이름의 수사로 2001년 10월 87세로 숨질 때까지 평생을 봉헌했다. 마리너스는 "바다(marine)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서 따왔다"고 한다.

라루 선장은 흥남 철수 작전 당시 상황을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항해를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마리너스 수사가 몸담았던 성 바오로 수도원은 마리너스 수사가 숨지기 이틀 전 한국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후 왜관수도원의 수사들이 뉴튼 성 바오로 수도원에 파견돼 생활하고 있다.